

보도설명자료

('20. 4. 14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정유업계 임원을 색출하라고
요구한 바 없으며, 정부는 정유업계 지원을 위해 최선을
다하고 있음 (한국경제신문 4.1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◇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정유업계 임원을 색출해 보고하거나
예상 발언자 명단을 작성하라고 요구한 바 없음
- ◇ 정부는 9천억원 규모 석유수입·판매부과금 납부 유예 등 어려운
정유업계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
- ◇ 4월 14일자 한국경제신문 <‘제조업은 영웅’이라는 정부의 두
얼굴>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.

1. 기사내용

- 산업부는 7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에 나온 ‘어디 한 곳이 부도나면
그때서야 산업부가 제대로 들여다볼까’라고 말한 정유업체 임원을
색출하여 산업부에 즉각 보고하라고 하였으며, 정유업체는 가능성이
있는 인사들을 모아 예상 발언자 명단까지 작성하고 있음
-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기업인을 찾는 정성으로 존망의 기로에
선 기업을 찾아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기사에서 언급된 바 있는 ‘해당 발언을 한 민간 기업 임원을 색출’해
‘즉각 보고하라’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, 해당 발언 관련 예상
발언자 명단에 대해서도 업계에 요구한 바도, 업계로부터 들은
바도 전혀 없음

- 정부는 최근의 위기상황과 관련하여,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대응책을 마련해 왔음
 - 정부는 3월 OPEC⁺ 감산협상 결렬에 따른 국제유가 급락(3.6일~) 이후 한달간 업계·전문가와 6차례의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음
 - 4.7일 보도를 통해 ❶석유수입·판매부과금 납부 3개월 유예(지원 효과 9천억원 규모 추산), ❷석유공사 여유 비축시설을 석유업계에 적극 임대 등의 지원계획을 밝힌 바 있음
- 향후에도 국제유가 및 국내 석유제품가격 변동을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, 석유업계 경영 여건 등 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협의해 나갈 계획임

※ 문의: 석유산업과 윤창현 과장/신유철 사무관 (044-203-5222)